

변함없이 역사의 장을 열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에는 더욱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월 1일 (주일) 제 161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칼럼



진정한 종교 개혁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중세로 들어서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자 독일의 젊은 신학 교수 마틴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이 젊은 교수의 외침은 의외로 큰 반응을 일으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그가 빗텐버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꽃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걸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은 그의 명예를 결코 기독교회를 근절시키려고 모진 박해를 가했으나 300년이 지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은 로마를 제압하여 버렸다. 로마의 정치와 헬라의 문화를 타고 바울과 같은 인물들 통하여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세로 접어들자 기독교회가 국가의 권력과 야합하면서 그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독교회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그 말씀에 의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러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속죄권을 팔아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였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있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읽는 것을 금하고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유포되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박해를 당하여 출교되고 순교를 당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회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외치며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었다. 종교개혁의 3대 기본 원리는 성경이 기독교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된다. 선행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기성 교회를 깨어 부수고 새로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릇된 교리나 교회 제도, 예배 및 생활의 규범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대'에 비추어 바로 잡는 것이다.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 교회 비판이 종교개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애 비추어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며 깨어 부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을 바로 믿고, 해석하고 가르치며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교회 행정이 사람의 편리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생활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2017년 새 해가 밝았다. 금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꽃을 든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대에 비추어 보고 조금이라도 빛나간 것들을 철저히 바로 잡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자인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 신년 초대 시

새해 기도

유일 흠 목사
 (노스펠릭스 연합감리교회 은퇴목사, 선교사)

새해에는,
 길이 되게 하소서
 누구나 밟고 다니게
 파인 자리에 엮드려 있게 하소서

작은 자가 되게 하소서
 지친 사람은 그냥 오라 하시는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가난하게 하소서
 사랑할 사람 많은 당신의 가난
 그것을 부러워하게 하소서

한 그루 나무 되게 하소서
 고단한 짐승들 쉬이 올 수 있게
 벌판에서 있게 하소서

신발이 되게 하소서
 움푹 파인 당신 발에
 신겨드리며 그저 울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전등을 끄게 하소서
 이 많은 별이 내 위에 있는 걸
 마음껏 보게 하소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워싱턴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3면
 신년설교
 고백원 목사(새한장로교회)



4-5면
 신년메시지
 종교개혁 500주년 ...



6-10면
 신년특집
 조진모 목사, 최동진 목사,
 전남수 목사, 손동원 박사, 한평우 목사



15면
 실용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순서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2016년도 가을학기 시작 : 2016년 8월 29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9.11,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뉴욕타임스, 퓨리서치/A+E네트워크 히스토리 공동 설문조사 결과 보도

‘2016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인들의 관심은 상당히 양극단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미국인이 뜻을 같이하는 것들이 있다.

나이, 지지 정당, 성별과 관계없이 미국인들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미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자신의 가치관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퓨리서치 센터와 A+E 네트워크 히스토리리는 최근 미국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고(Americans Name the 10 Most Significant Historic Events of Their Lifetimes),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도했다(What Events Most Shaped America in Your Lifetime? A Pew Survey Tries to Answer).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6%는 9.11 테러를 꼽았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였다. 퓨리서치 센터의 클라우드미아 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이끌었다.

“평소에 사람들이 역사에 깊은 관심을 두지는 않죠.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인 논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각각의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9.11 테러를 가장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76%로 압도적인 1위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도 40%로 2위에 올랐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케네디 대통령 암살, 베트남 전쟁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에 따라 결정적인 역사적 장면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있다. 그 뒤를 잇는 세 번째 역사적인 사건에서 인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백인에게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혁명이, 히스패닉에게는 희생자 대부분이 히스패닉 혹은 히스패닉 계였던 올란드 총기 난사 사건이 꼽혔다.

지지 정당, 성별, 종교, 교육,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거나 나타나더라도 미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생각을 알려달라는

76%... 오바마 대통령 당선 40%로 2위

세대, 인종별 큰 차보여... 지지정당, 성별, 종교, 교육, 소득수준 별은 미미

로 한 세대에도 그 세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영향을 받아 세워진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고 딘 부소장은 분석했다.

9.11 테러는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역사적인 장면으로 꼽혔지만, 나머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대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른바 “조용하지만 위대한 세대”로 불리는 70대 이상의 미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들로 이에 대한 기억이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다. 52-70세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베트남 전쟁을 더 많이 꼽았다. 밀레니얼세대부터 X세대까지 나머지 18-51세의 응답자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종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였다.

9.11 테러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답한 건 흑인들이 유일했다. 흑인 응답자의 약 60%가 9.11 테러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답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도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60%에 육박했다. 백인이나 히스패닉에게는 9.11 테러가 단연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기록돼

질문을 없었지만, 대신 살아오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자랑스럽거나 반대로 부끄러웠던, 혹은 실망스러웠던 적이 언제였는지를 묻는 문항은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척 다양했다. 딘 부소장은 원하는 종류의 답을 끌어내는데 실패했거나 질문 자체가 개인사가 반영된 무수히 많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가 미국인이라 자랑스러웠던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 19%의 응답자가 9.11 테러 당시 미국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이 자랑스러웠다고 답한 이들은 14%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오히려 실망스러운 순간이라고 답한 이들은 11%였고, 응답자의 10%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와 당선이 부끄러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6일과 7월 4일 사이에 미국인 성인 남녀 2,0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인구 구성비에 맞춰 각각의 답변에 가중치를 매겨 정리했다.

‘2017, 하나님보다 사람 힘 믿는 시대 온다!

세계언론, 트럼프 등장 후 “철권외교”로 “신냉전시대” 기류 형성중인 지구촌 정세 전망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을 능가하고 오래 견딜 것이다”(D.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인).

전 세계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 치킨게임’ 가능성에 경악하는 데도 트럼프 당선인은 ‘핵 능력 강화’ 주장을 철회하기는커녕 다시금 강조했다. 23일 MS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날 트위터 발언 진의를 재확인했다. 비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지난 15일 받은 당선 축하편지를 공개하면서 ‘상호 협력’의 원칙을 환기시키긴 했지만 이조차도 ‘강 대 강’의 힘겨루기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년간 공들여온 국제협조주의가 수명을 다한 양상이다. 미국이

‘철권 외교(Iron-fist Diplomacy)’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과감한 리더십을 내세운 미국·중국·러시아 3강의 정상들이 연일 힘 대결 중이다. 이른바 ‘스트롱맨(strongman)’ 리더십이다. 이들은 자국 내에선 지지를 받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시스템에 기대지 않는 탓에 세계정세를 불안케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다(Trump, Putin, Xi and the cult of the strongman

경제-외교 패권의 절대강자 지위를 상실하고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전환 이후 각 권역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마려, 미-중 관계는 ‘신냉전’으로 치달아왔다. 혼란 속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스트롱맨 정치(strong-man politics)’를 가속화했고 결과는 외교 실의와 대내적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국제 정세를 암울하게 전망한다.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리더십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가속화돼, 한마디로 어디로 뿔지 모르는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바라본다(The Economist’s “The World in 2017” Makes Grim Predictions).



트럼프-푸틴-시진핑... 스트롱맨 정치, 마초정치

자국내-개성 앞세운 강력 통치, 대외정책-국익, 자존심 내세운 강경정책

하나님 두려워하는 리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

leader: The rise of such personalized autocracy will lead to international instability).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핵)무기 경쟁을 하겠다”며 전날 트위터에서 밝힌 ‘핵 능력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교감을 과시하며 그와 친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에 발탁한 터였다. 그러나 돌연 모스크바를 겨냥한 발언으로 핵 경쟁 망령을 불러왔다. 지난 2일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왜 ‘하나의 중국’에 얽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중 관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한 셈이다.

푸틴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편들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얻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몽골을 압박해 무릎 꿇렸다. 미국에 접근하려는 대만엔 무역·외교 보복을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질서를 흔들리는 스트롱맨의 등장 원인에 대해 “의부를 향한 공격성으로 내치의 취약성을 상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 저유가로 러시아의 경제는 파탄 났다. 푸틴은 ‘제국의 영광’을 외치며 만방에 영

향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실질 임금엔 10% 이상 줄임에도 8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양극화와 일자리를 잃고 좌절된 저임금 백인 노동자 덕에 승리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쿠데타로 불안한 내정을 수습하는 데 철권을 활용했다. 그는 유럽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친미 외교정책을 버리고 중·러에 구애하며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상황은 1930년대와 비교된다. 대공황으로 정치는 급진화 했고 강한 지도자를 향한 열망은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낳았다. 그 끝은 혼돈과 파국이었다. 2017년 철권 시대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까닭이다.

이어서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글로벌

경제는 정치의 손아귀에 놓일 것”이라며 “자국 우선주의 세력이 얼마나 득세하고,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와 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에 지구촌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프랑스 대통령 선거, 독일 총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며 “투자자들 앞에는 이들 초대형 정치 이벤트의 의미와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숙제가 놓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트럼프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무산되는 것 정도의 충격은 감당하겠지만 기존 무역협정까지 손대면 세계 경제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blessings be with you throughout the coming year

발행인 장영춘 목사 외 미주크리스천신문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은 그가 어릴 때 살해당했습니다. 고아로 성장한 그는 청년 시절에 급진적인 혁명당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 사형중지를 외치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그는 처음 결혼에도 실패했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가난과 추위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간질병에 시달렸는데, 오히려 그는 자기의 병을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겨울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런 역경을 ‘섬리의 밤’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며, 이는 그의 삶을 더욱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

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 하셨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기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하셨기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라 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시150:15).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그 분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는 고통스런 때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테네시 주 멤피스에 케몬즈란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자식을 잊먹이는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먹이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본문 13절에,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와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기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이는 그동안 다투어 무수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직 지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숲한 죽음 속에 빠졌었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말을 영어성경 KJV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직면한 환난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이즈나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망각증’이라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

랑했는데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먹지 못할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잊지는 않습니까? 제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대학교에 갈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열심도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형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7-14절

고택원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새한장로교회)



라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절망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적에게 쫓기거나 또 쫓기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하고 견고했던 것은 그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영어 January는 라틴어 야누리우스(Janurius)에서 왔는데 이 말은 로마신화 속에서 두 얼굴을 가진 출입문의 수호신 야누스(Janus)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1월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문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문에 들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해에도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인가?

1.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본문 7-8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대적의 위협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부르라’ 나에게 호소하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나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내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케몬즈는 8학년 때 학교를 포기하고 집안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여러 종류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가 목재소 직원으로 일하던 40대 초반되었을 때 불행으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케몬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고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때 그의 마음에 지난여름 휴가로 가족과 함께 워싱턴DC에 여행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모텔에 묵었는데, 한 방을 쓰는데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2불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모텔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멤피스에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 돈으로 호텔을 짓고 동업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른과 동숙할 경우는 무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사업가를 거느린 호텔 ‘Holiday Inn’을 창업한 케몬즈 윌슨입니다. 그는 해고통지서를 받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금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3:16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어떤 사랑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보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내 자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확신하며 일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무수히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같은 절망 속에서도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원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보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나는 친구의 집에서 처음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금지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방 가까이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잠이 깨었는데 그때 출입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병든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소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아픔은 사랑하는 아들이 전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도 이런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사

적인 신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많이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하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평생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다짐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을 누리러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결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리라 결심하십시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믿게 되면 거기에 강한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십시오. 감사가 풍성한 행복도 풍성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aekwonkoh@hotmail.com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1월 7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과 위기 극복

필라교협 회장 **김영천 목사**(필라한마음교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주신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17년에는 미주내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동포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기업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37회기 필라교협 임원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인사 올립니다. 2017년은 교협 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필라 지역의 교회와 동포사회가 한 해 동안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므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언제가 기뻐하시는 백성이요,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필라 지역과 인류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온 세계가 복음화 되는 그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2017년은 필라델피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동포들과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시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조국 대한민국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동포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황하균 목사**(뉴소스망성결교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주성결교회와 성결가족을 대신하여 미주 크리스천신문 독자 여러분들과 동포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현저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담담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여호수아3:5)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시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년의 소원... 믿음의 정진, 호흡되는 기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새해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축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태가 불안하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에 더욱 정진하기를 소원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깨달은 말씀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전도와 봉사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로 이웃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며 선교의 선봉입니다.

2017년 새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세속화 회개, 말씀으로 개혁하는 해로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 회원교회 여러분, 2017년 43회기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를 섬기게 된 회장 김홍석 목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2016년은 분명 우리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돌보셨고,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Back to the Scripture)"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Reformation)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의 시계 제로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겠으며, 또한 세속에 물들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에 부여하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땅에 떨어뜨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변질은 곧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밭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우리 이민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울러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의 빛이 되어 돌보고 섬기며 두고 온 우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43회기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로 정하고 세속화로 변질되어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전 회원교회와 함께 힘을 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17년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 거룩한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와 동포사회 위에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강의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라스베가스교협 회장 **김중수 목사**(제일침례교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광명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광명의 새벽별 되시는 인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과 풍성한 행복과 참된 소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Lifeway의 Sunday School Director였던 Dr. Harry Piland는 우리 사회를 "갈등(Conflict)의 시대, 혼돈(Confusion)의 시대, 위기(Crisis)의 시대"라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겉잡을 수 없는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을 사살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테러집단으로 부터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는 이단들이 각광각색의 이단 사설로 순수한 신앙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많은 위기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겠다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 생사를 오고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은 너무나도 마음아파 안타깝지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보루요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도 부족하데 인기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상과의 타협주의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국가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 잘 압니다.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잘살고 평화롭게 된다는 착각을 할 수도 없는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1:14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적문제나 삶의 비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 성경공부 많이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시요(Christ), 생명의 주시요(The Lord), 우리의 구주(Savior)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Master)이 되실 때만이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진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살후3:16) 참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곡히 간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해

뉴저지교협 회장 **김종국 목사**(뉴저지 새언약교회)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한인 동포들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토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는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회복이요, 치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이민생활이 전보다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과 이민생활에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함을 생각하면서 뉴저지의 250여개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들로 다시 설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에는 한국에서도 소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미국 땅에서도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복된 정유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편)입생 수시 모집안내

2017 겨울 학기 인텐시브 • 개강 1월 23일 ~ 2월 4일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가(FAFSA) 가능하며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베데스다 신학과 온라인 수업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 중 수업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40위까지 발표된 명단에 한인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올라갔습니다. http://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

1976년, 베데스다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대에 있어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헌신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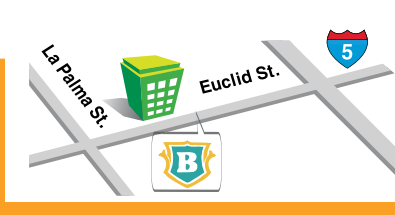
입학지원자는 반드시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Master of Divinity(M.Div) 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M.Div. program 과정 중 평점(GPA)3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중 6 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자는 M.Div 과정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규 4년제 대학교 I- 20 발급 TRACS, ABHE, BPPE 인증대학, NCCAA 멤버

입학안내 문의 : 직통 213.327.8095 켄 박 목사 / 목회학 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입학처 TEL : 714-517-1945 모니카 김 / E-mail monicakim@buc.edu
www.buc.edu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BETHESDA UNIVERSITY

Bethesda University Anaheim Main Campus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TEL : 714-517-1945 FAX : 714-683-1440 EMAIL : monicakim@buc.edu



중고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만 볼 수 있는 시선

타코마교인 회장 최상국 목사(미스바교회)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17년 새해는 밝고 명랑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밝고 희망차고 명랑하게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밝고 건강한 내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상의 삶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것도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꿈은 나와 너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행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내가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만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부끄럼 없는 새로움 보이길

CRC코암노회 서기 임지석 목사(나성세계로교회)



새해의 아침이 어김없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6년은 지나간 역사가 되었고 2017년이라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국과 미국의 현실만 보더라도 위기와 역경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한해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경험도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묵은해와 함께 날려 보내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금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욱 힘 있게 신앙의 끈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 가운데 한해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럼이 없도록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 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알칸사교인 회장 조선욱 목사(소망연합감리교회)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예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어 더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 이미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고(Incarnation).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Immanuel).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True Light)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며, 이 세상에 구원의 생명으로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복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쁨보다 한숨이 희망보다 좌절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더 외롭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낮고 천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섬김 받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에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평화가 모두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 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 활짝 열리는 새해 되기를

커네티컷교협 회장 김성길 목사(주사랑교회)



다사다난했던 2016년은 역사 속으로 저물고 새로운 소망을 온 세상에 비추는 정유년 새해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6:30).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 이 받아누림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관문이 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선포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기위하여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다.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며 무엇을 주저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믿음의 선포이다. 입술로 고백하며 표현하는 것이다. 바울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는 책이 있다. 내용 중에 번지점프 이야기가 나온다. 예는 프로그램에 나온 여리다 여린 여자 연예인이 번지점프에 도전하기 위해 11미터의 출발대에 섰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때 조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연예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차 질문하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그 여자 연예인은 뛰어내렸고 미션에 성공한다. 그런데 바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다. 조교가 질문할 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번지점프에 성공하더라는 것이다. 선포의 힘이요. 말의 위력이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민14:28).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려있다. 2017년도에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라. 감사, 긍정, 격려, 비전의 언어를 선포하자.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생명의 길,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인생

샌프란시스코교협 회장 현진광 목사(샌프란시스코선교감리교회)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운데 개인과 가정에 귀한 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걷는 존재라 여겨집니다. 누구라고 예외는 없지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길을 헤맬 수는 있어도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삶은 그가 걸어간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으며 각자의 길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떠오릅니다. 먼저는 어떤 길을 걷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각자의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선한 길,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정하며 우직하게 걸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금도 제법 짭짤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자와 교토학자들까지 응모했지요. 비행기,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방법, 지도상에 지름길을 측정해서 교통수단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법 등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현상 공모에서 정작 1등으로 뽑힌 사람은 평범한 보통사람이었고, 정답 또한 뜻밖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수긍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요. 정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인, 친구 등 상징적인 의미를 띠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누구와 같이 걷느냐에 따라 길은 달라집니다. 가까운 길도 멀게 느껴지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는 동행이 있습니다. 험한 길도 편안하게 여겨지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 쉬운 길도 험하게 느껴지는 동행도 있습니다. 나누는 대화가 유익하고 힘이 되고 때때로 침묵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 말과 침묵 모두가 허전함으로 이어지는 동행도 있습니다.

험한 세상, 외롭고 힘든 이런 생활,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2017년 한해가 시작되어 각자의 길을 간다면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참 좋은 친구와 동행하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변화! 은혜! 감사!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에틀란타교협 회장 송상철 목사(새한교회)



새해에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먼저 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사람에게는 평생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평, 원망하며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환경을 극복해서 이기고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란 예측불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가정은 어디로 가야할지? 자녀들은 어디서 무얼 할지? 교회는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지? 모든 게 불확실하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들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고, 재능이 많다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약속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파워가 커져서 어려운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져서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어디서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비결은 은혜 받고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혜택 없이 사는 20억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넘는 사람보다, 하루 일일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일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사람들보다, 하루 한끼라도 밥을 먹는다면 8억의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사람들보다, 체포 고문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30억 사람들보다, 병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잘 잘 잠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사람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에서 머리 돌 곳도 없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마중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핍류입니다.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힘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변화! 은혜! 감사! 세 마디를 기억하고 새해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Name, Address, Phone/Fax,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payment method.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원고도착순)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작게 시작된 운동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대문에 내걸었다. 당시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타락 일로에 있던 중세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루터는 짧은 서문에 저자의 이름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글을 읽고, 관심 있는 자들과 구두 또는 서신을 통해 서로 토론하기를 원했다. 그는 교회를 향해 도전장을 던져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려는 의도로 이 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직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아가서 잘못을 시정되기를 바라는 진솔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혁명과 거리가 멀다. 그는 급격한 변혁을 시도하여 단숨에 교회의 모습을 뒤집어엎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부터 크게 이탈하였음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의 개혁 사상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교회의 오류를 시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루터의 작은 외침이 본인의 의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기존의 교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새로운 형태를 지닌 독립된 교회를 출발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운동이 향후 종교개혁이란 거대한 운동을 전환되어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혀 없었다.

이미 시작된 운동

마르틴 루터의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자성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역을 마감하면서 중세교회시대가 열렸다. 기대와 달리 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중세 가톨릭교회는 유럽 사회를 영적 암흑기로 빠져들게 하였다. 교회가 교황의 탐욕과 교회의 이권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절대적인 힘을 지녔던 교회를 대항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선구자들이 있었다. 영국의 존 윌클리프(John Wycliff, 1329-1384)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가 생명을 내어놓고 주장한 것은,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가 1370년에 저술한 "교황에 대한 저항"에서도, 적그리스도이며 오만한 교황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고, 교회는 오직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였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루터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선행과 보속을 근거로 죄를 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굽

히지 않았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 위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며 교회 도전하는 개인과 집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영적 어둠이 짙어지고 세속의 일에 매료되면서 더욱 사나워졌다. 공개적 탄압은 물론,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 버리는 비밀 조직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그 당시 상황에서도, 개혁을 부르짖으며 교회를 대항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교수로 재직하던 마르틴 루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결국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았다. 교회가 그를 가만히 두려하지 않았다. 루터는 항상 생명의 위

르네상스 문화 자체는 인간중심적 사상이 지닌 가치를 최대한으로 부여하는 세속적 운동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도 있었는데, 이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이는 지금 지니고 있는 지식과 사상의 뿌리 또는 원천을 직접 대하여 보자는 운동으로서, 그 결과 그들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힌 대표적 고전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신앙인들에게 가져다준 영향은 지대하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 휴머니즘을 주도한 가장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9-1536)이다. 그는 고대문화와 기독교

성되기 시작하였다. 피라미트 구조가 파괴되면서 사회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나아가서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나아가서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변화는 심한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틀에 박힌 사회구조 안에서 지내던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서 왕권을 강화하는 민족국가의 출현은, 교황의 권위를 절대화 하면서 유럽을 장악하던 신성로마제국을 대항하며 도전하는 갈등의 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세속 군주들은 가톨릭교회가 큰 힘과 재정을 지니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어, 가급적이면 종교개혁 운동의 확산을 지지함으로써 교회를 견제

요하였다. 교회는 오류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았다. 성도들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영적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지닐 수 없었다. 종교개혁은 어둠에 쌓인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일이었다.

중세교회에 개혁이 필요했던 다른 이유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에 관계된 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것 보다, 자신들의 주머니와 쾌락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였다. 차마 지면을 통해 편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욕심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사상을 더욱 고집하였다. 종교개혁은 반드시 필요했던 신학과 삶의 갱신 운동이다.

이 시대에도 필요한 운동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시대는 어떠한가? 교회의 개혁은 매우 심오한 주제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교회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도 막연하다는 것이다. 또는 마음에 담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척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 자신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하게 될 것이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아마도 온 세계의 교회가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분주한 한 해를 보낼 것이라 생각된다. 16세기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중세시대의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시기였다면,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일어났던 일을 후대 내외 반복한다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적 고민은 성경적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적 개혁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고 확실한 믿음으로 출발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참된 모습이다. 이는 필자가 앞으로 독자들과 함께 고민할 주제이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핵심, 말씀의 진리 붙잡는데 있다”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르네상스, 자본주의 형성, 인쇄술 발명, 중세교회 부패가 종교개혁 성공시켜 개혁자들 관심은 성경적 교회 재건... 성경의 절대적 권위 인정하고 순종해야

힘을 느끼면서 지내야 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도피한 적도 있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16세기에 들어와서도 천년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선구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성경 중심의 개혁 사상을 거부하였던 그들은, 지속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개혁 역시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한 것은 폭력적 탄압이었다.

미리 준비된 운동

루터에 의하여 불확실하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대한 운동으로 확대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세상이 달라졌다. 중세의 말기, 즉 14세기와 15세기 유럽 사회가 중세의 모습으로부터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자들이 중세의 미성숙한 모습을 탈피하기 위하여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시도하였다.

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믿고, 기독교를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면 반드시 고전 연구, 특히 인간의 본질을 찾게 하는 성경 연구에 몰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가 지닌 오류를 해학적이지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눠지 않고 한 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동시대 인물로서 두 사람 사이에 신학 논쟁도 벌어졌다. 결국 그는 말년에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향후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라면,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헬라어 신약성경을 편집한 장본인이다. 그는 성경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서 종교개혁에 크게 공헌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쉽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상의 변화만이 아니었다. 실제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형

하려 하였다.

종교개혁이 빠른 시간에 확산되었던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인쇄술의 발명이다. 1455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는 유럽 사회에 사상적 혁명을 가져왔다. 성경과 고전은 물론, 개혁자의 생각이 담긴 책자를 다량 찍어내는 인쇄소가 여러 곳에 세워졌다. 종교 개혁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했던 운동

루터의 개혁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은 물론, 루터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성경을 통하여 개혁정신을 습득한 자들이 줄이어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에 헌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16세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마치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산불처럼 번져갔다. 맹렬히 타오르며 번져 나가는 개혁의 불길을 제어할 길이 없었다.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다. 중세교회는 반드시 개혁이 필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새해가 밝아온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이 흐르면서 인류 역사와 문화는 많은 변혁을 가져왔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당 시대의 역사적 상황, 배경을 반영하는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과 성경적 진리(canonical text)와의 끊임없는 복음적 소통(Gospel communication)을 통하여 규정되어지는 성경적 가치체제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5 Solas로 요약해볼 수 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예수'(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등이다. 이러한 5 Solas는 철저히 당시 로마카톨릭의 7성례와 공덕축적설을 통한 행위 구원론의 반작용으로 드러나게 된 신학적 특성들을 알 수 있다.

당대 로마카톨릭의 그릇된 비성경적 교리들을 통한 교황권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시대적 상황(cultural context)에 대한 성경적 진리(text)로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게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는 14-16C에 걸쳐 유럽사회에 편안하게 확장된 르네상스 인문주의(humanism)운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세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동요되어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되고, 로마카톨릭에 의지했던 신앙적 기반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여 붕괴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히려 고전 문학을 탐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그레코 로망(Greco-Roman) 시대의 고전문학은 물론 성경을 비롯한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저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대 유능한 종교개혁자들은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나 필립 멜랑톤(Philip Melancthon), 스위스의 쾰링글리(U.Zwingli), 프랑스의 존 칼빈(John Calvin), 네덜란드의 요한 슈투름(Johannes Sturm)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이러한 북 유럽의 기독교적 인문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되었다. 당시 스키피라 신학의 영향 하에 교황권 확립에 몰두하며 제도화된 비 성경적 교리에 대한 성경적 텍스트(text)를 통해 당시의 콘텍스트(context)를 재해석하고 바른 성경적 대안점을 찾기 위해 소통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출발을 맞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과 들고 살아야 한다"는 칼 바르트의 말대로 당 시대의 역사, 사회, 문화적 상황(context)에 대한 성경적(text)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혁운동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대를 바르게 읽어내고, 성경적 진리로 바르게 해석해, 선지자적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 나가지 않으면 자칫 주관주의(subjectivism)에 빠지게 된다.

주관주의라 함은 성경적 진리를 상대화한 좌, 우의 양 극단을 일컫는 종교 심리학적 용어이다. 좌로 보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자유주의운동이요, 우로 보면 문자적 근본주의에 치중한 세속적 기복주의 운동이나, 경험에 치중하는 수도원적 경건주의 혹은 극단적 신비주의 운동들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성경적 복음 진리를 이성이나 감정, 혹은 경험으로 상대화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마침내는 중세 카톨릭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지름길임을 역사적 교훈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6세기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둘 다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아드 폰테스'(Ad fonts, '원천을 지향함') 운동이었다

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된 점에서 에라스무스와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당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문제를 부정부패와 매관매직, 음행 등과 같은 도덕적 타락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개혁을 제도개선을 통한 도덕과 윤리 문제의 해결로 간주한 반면에,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당대의 윤리적 타락을 현상적인 문제로 보았고, 이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왜곡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상을 개선하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성경의 최고 권위를 회복하여 교황의 권위 위에 세우는 일과 왜곡된 중세 교리를 말씀에 따라 바르게 교정하고 가르치는 일

종교개혁을 기독교 교리의 개혁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회 제도의 개선과 타락한 개인의 도덕성 회복으로 간주한 인물들 가운데에는 스위스 쾰링글리의 종교개혁자 쾰링글리(Zwingli)와 독일남부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부처(Bucer) 등이 있다.

쾰링글리는 개혁의 우선적인 과제를 타락한 교회 제도의 개선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개혁과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교리적 개혁에서부터 시작하여 더불어 사회적, 제도적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저들은 우선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진리에 입각하여 도덕적, 윤리적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text 중심적인 context와의 소통에

개인적인 삶의 성화에도 적용하는 포괄적인 신앙의 개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 시대적 상황의 제반 문제점들을 성경적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경적 진리 안에서 부단히 소통하며 윤리적, 도덕적, 제도적 대안들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시대적 상황과 성경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에서의 축은 text인 성경이 되어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발점점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시대적 상황(context)에 적절하게 타협하게 되면서 마침내는 진정한 개혁이 아닌 적당한 상황 윤리(situational ethic)에 머물게 된다는 점을 교훈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현대 사회에 만연해 저가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의 문제이다. 현대교회가 성경적 진리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지 않고 '소수 인권'이라는 상황윤리에 집착하다 보니 마침내는 성경적 진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진정한 개혁의 방향은 성경적 진리에 입각하여 소수 인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소수인권의 문제(context)로 진리(text)를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종교개혁의 최고의 산물인 '만인제사장론'(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다. 만인제사장론은 당시 교황과 사제중심적인 문화적 경향을 성경적 진리로 환원시킨 성경적 대안이었다. 이러한 만인제사장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오는 카톨릭교회의 사제중심주의에 비해 개신교회의 특징 중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교황권이 중심이 된 '사제주의'에 반한 '만인제사장론'이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적인 제사장과 희생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한번 영원한'(once for all, 히9:12) 속죄를 이루셨기에, 이후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인간 중보자나 제물이 필요 없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딤후2:5)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벧전2:9)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성경적 사실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적 메시지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러한 복음적 메시지가 오늘날 개신교회 교리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 개개인의 일상의 삶과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많이 후퇴하였고, 또 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처럼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context를 향한 text적 대안의 산물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 이 시대와 상황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는(고후10:5) 복음적 소통, 개혁의 몸부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johnjdc@yahoo.com

“Text와 Context의 소통의 측면에서”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시대 상황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복음적 소통, 개혁의 몸부림 계속
오늘 한국 교회, 종교개혁 최고의 산물 '만인제사장론' 바른 이해 필요

는 점에서는 종교개혁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는 답았을지 몰라도, 돌아가는 소통의 방법과 방향이 달랐기에 인문주의와 개혁주의는 동반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라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를 비교해보면 진정한 개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교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소크라테스와 키케로, 제롬 등의 영향을 받은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다.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는 칭호를 누릴 정도로 순수한 라틴어 문체를 구사하는 고전문학의 대가였으며, 특히 신약 성서를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새롭게 다시 번역했을 정도로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개혁의 인물로 발돋움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로마카톨릭의 부패한 상황(context)을 텍스트(text)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카톨릭의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반면 루터는 성경적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 당시 카톨릭의 그릇된 교리적인 측면에

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즉, 텍스트(text)가 주축이 되어 끊임없이 콘텍스트(context)와 소통을 했던 것이다.

기독교 인문주의가 더러워진 '교회를 정화하자!'는 운동이었다면, 종교개혁주의는 '교회를 근본에서부터 바르게 세우자!'는 운동이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포괄적이었고 근본적이었던 이유는 시대적 문제를 콘텍스트에 머물러 해결하지 않고 텍스트로 들어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윤리적인 문제에만 집착하여 본질적인 성경적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요원할 것임을 500년 종교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경적 진리가 바로 세워진다면, 윤리적 개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마치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임과 같은 원리이다(Anthony A. Hoekema).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화가 시작되어 칭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앞장 선 인물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John Calvin)과 쾰링글리의 후계자 불링거(Bullinger)였다. 이들에게 종교개혁은 기독교 교리의 회복과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회와 개인의 삶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동안 개인구원에만 치중한 전도와 선교정책이 근시안적으로는 개교회 중심적인 부흥을 이끌어 온 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개인적 기복주의를 낳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성경적 진리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대안을 찾는 노력이 더한층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경적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혁과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이라는 루터의 가르침을 단순히 바른 기독교 교리의 회복과 교육을 통한 교회 개혁에만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의 개선과



GRACE THEOLOGICAL SEMINARY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c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개혁은 반드시 회복을 지향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을 의미한다. 개혁자 칼빈은 결코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잠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개혁자들은 변질된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재건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봉사한 종들이었다. 개혁은 결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교회의 회복을 위한 운동이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할 때, 두어 가지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원한다. 회복은 상실을 전제로 하는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변질된 모습에서 다시 본래적인 의미를 새롭게 세워간다는 의미에서의 '회복-Restoration'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지나치게 변질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소위 개혁주의자들의 테마라고 딱딱한 경직중심주의적 성향을 혹은 지나친 현실개혁의 선동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탓이다.

교회개혁, 교회회복, 예배회복
언어란 사회성을 담보해서 진행이 되기에,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개혁'을 말하는 데 대한 선의식이 다수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개혁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의 회복을 말하면서, 교회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의 회복임을 실제 목회현장의 경험들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현재적인 적용은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이를 위한 성도 각자의 예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실제 목회현장에서 보면, 예배가 무너짐으로 교회와 삶의 심각한 분리와 파괴현상을 드러냄을 확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현재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제 목회현장의 경험들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교회의 존재 목적-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목적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잘 못드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이다. 좋은 교회와 성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근원샘물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은혜를 마치 소비자 중심주의 태도에서 취하려 하

는 것을 본다. 마치 물건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사듯이, 자기만족-자기기쁨-자신의 편안함을 근거로 은혜를 스스로 선택하려 한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 외에는 우리가 누릴 만족과 기쁨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한시간-정한 장소에서 예배
소비자 중심주의 태도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도 소비자 편리에 맞춰 운용하려 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정한시간과 장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아닌, 성도의 입장에 끼워맞춘 맞춤형예배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보면 세상도 이에 발맞추어 모든 상황들이 주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변경시켜 갈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2. 눈에 보이는 교회(Local Church)가 분명한 예배자
야곱의 생애를 관통한 루스와 세겜같은 세상의 빈들에서 우리는 나의 벤엘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의 루스와 세겜 그리고 벤엘이 어디인가? 세상의 빈들 광야에는 평안이 없다. 엄청난 기계문명 속에서 영적인 기제들이 범람하듯 밀려들고 있지만, 홍수날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교회도 신학교도 목회자도 말씀도 넘쳐나는 이때에 세상은 더욱 더 갈증의 몸부림속에서 목이 마른 정도를 지나 이제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세상의 빈들에서 야곱과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벤엘이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

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었는데, 몸을 움직여 모이기를 앓고 귀신도 아닌데 몸없는 예배,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꼭 내가 몸을 움직여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필요하면 현금은 체크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의 일들도, 로봇이나 돈으로 고용된 일꾼에 의해 감당해 할지 모를 일이다. 몸을 움직여 섬기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축복이다. 그러한 벤엘이 분명한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3.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이 흠잡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러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회복의 역사가 없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나쁜지는 않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자리를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정을 만족케 하는 사람중심의 프로그램이 대체되는 한 회복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 예배는 철저히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근본적인 방향들이 바뀌게 된다. 회복이 드러나게 된다.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것은 내려놓고, 신령한 진정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4. 오직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의 타락과 예배의 온전하지 못함의 중심에 말씀을 벗어난 감정주의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 바른 예배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이해를 따라 가는 예배는 무너진 예배이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믿음의 예배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30%, 감정의 영향이 70%를 차지한다. 사람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보다, 감정과 기본대로 살아가는 존재에 더 가깝다는 말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마음이 안내려서, 기본 나빠서 안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란, 기분이 감정의 요인보다는 말씀에 대한 알고 신앙의 고백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니까-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감정주의 신앙을 벗어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향한 자신의 눈-고집스런 불신앙의 관점의 눈에 빠져드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리한 영적감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神지식(Knowing God)과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의 영성은 문제 속에서 자신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다루게 한다. 그것을 '섬리적 해석' 혹은 쉽게 '하나님의 손과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름답고 향기나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빛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섬리-하나님의 손과 눈-의 역사이다. 말씀을 아는 자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다. 마침내 풍광 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분따라 감정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오직 말씀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davidnjeon@yahoo.com

“교회를 위한 운동-교회와 예배의 회복”(생)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개혁은 교회회복 운동, 상실을 전제로 본래적 의미 새롭게 세워야
개혁은 온전한 교회세우기, 교회 존재목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것이다. 그러다 보면, 주일성수의 개념마저도 희미해질 것이고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찾고 구했던 신앙의 자유와는 반대방향으로 세상을 향한 자유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기 아니한가? 예전에는 교회 가는 일 때문에 교회봉사 하는 일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자식과의 싸움이 되었는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위해지나가는 아픔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고통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 할 틈도 없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해결하고 타협하더라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해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도 없고 더불어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도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성도가 스스로를 은혜의 소비자로 전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존귀함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오직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지는 성도의 인생에 묻어나던 예수황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교회에서 온전히 드러지는 일에 최우선적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고, 그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분 앞에서 삶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연약해진 갈증난 인생을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벤엘이 분명한 신앙생활
오늘날 루스와 세겜이라는 이민자의 길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살이에서, 당신의 벤엘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어디를 말해야 할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분향 천국도성이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그 벤엘을 찾고 구한다면, 그곳은 바로 내가 섬기는 로컬 처치, 나에게 있어서는 알칸사 리틀락의 제자들교회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드러지는 예배가 인생의 회복의 길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섬기는 지역교회가 분명하지 않은 성도 마치 뿌리가 약해서 도무지 미래의 튼실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날 몸이 교회로 오지 않는 편리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한다. 몸을 산재물로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겠

같은 시대에 살던 형제 가인은 제사는 드렸으나, 아벨이 드린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사였다. 모양만 같을 뿐이었다. 이러한 것을 신약에서는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도 없고 거룩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껍데기 예배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신앙은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종교는 예배의 현상은 있으나 본질이 결여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모를 때, 예배는 무너지는 것이다. 가인은 그 차이의 심각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옛적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다. 아벨의 예배-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 찾으시는 것이다. 이는 시대를 떠나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놓쳐버리고, 영적인 본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생은 잃은 무성하고 열매도 잔뜩 달려있지만 쓸모없는 것들로만 가득찬 돌베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열매 없는 지루한 신앙생활의 여정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2017.3.13(월)~15(수)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이학준 교수
조직신학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2G 크리스찬 교육센터 소장



신혁선 교수
사회복지
Virginia Commonwealth Univ.
YOUTH KOSTA 멘토



최병호 목사
베다니 장로교회 담임
아시아인 아메리칸 센터 이사장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국내 선교위원장



배현찬 목사
주 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노승환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담임목사님과 함께 등록하시는 평신도 지도자 적극 환영!

- 장 소: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 협 력: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 국내 선교 위원회

- 숙 박: Four Points by Sheraton Richmond
- 등 록: 주 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 주 관: 주 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주 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804)560-7500/7509 WWW.LJKC.ORG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Five Solas

2017년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구원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었다.

루터는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교황의 기원과 권위가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비성경적이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종교개혁자들은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a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다섯 개의 Sola를 주장했다.

목은 교회를 새롭게 하라

세계 최고의 신뢰와 명성을 이어가는 기업들을 연구해보면, 어떤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전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이다. 한 때 정상의 위치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걷는 조직이나 개인이 있다.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모든 위기와 정세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지혜로운 리더는 바로 이런 원인을 찾아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이가 든다는 것을 슬퍼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나이 드는 것이 단순히 노쇠나 노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험과 경륜이 축적된다면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이 멈추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할 때 조직이나 개인은 정체와 퇴보를 시작한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의 경우에도 여러 부분에서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개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개혁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라는 명제가 지금 절실하게 요구된다. 목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의 종들은 버리는 결단을 아주 잘했다.

진정한 개혁의 의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 개혁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와 각성이고 성화의 삶이다. 개혁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말씀으로 돌아가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남에게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기 전에 자신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살피며 개혁을 외쳐야 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개혁을 외쳐야 결실이 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종교개혁자들은 삶이 뒷받침되어 개혁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 본받을 만한 리더, 희생하는 리더들이 외치는 개혁하자는 외침을 듣고 싶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리더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리더는 많은데 진실 된 리더를 찾기 어려운 시대이다. 정말 신실하고 참신하고 존경받을만한 리더가 ‘개혁하자,

사는 결코 펼쳐지지 않는다.

▶채울 것을 채워라: 참된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좋은 것을 채우는 것도 잘해야 한다. 개혁하기 위해 먼저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으로 채우고 정결하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도 깨끗하게 될 수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키포인트는 내 안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다.

뜻을 바르게 제시하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요구된다. 앞뒤 문맥을 잘라낸 채 짧은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진리를 왜곡하는 설교가 많다. 이런 성경해석 위에서 건강한 교회는 설 수 없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성경학자가 되어야 한다.

▶역사의식을 가져라: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식과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는 부분에 얽매어 전체를 보지 못하거나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을 도외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노안(老眼)이 찾아온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 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려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노안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노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숙한 삶에는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참 일할 나이가 나무를 보는 삶이었다면, 성숙해서는 숲을 보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개혁하는 리더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개혁은 요원하다.

▶개혁은 신앙 전체의 변화이다: 2017년,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 개혁은 단순히 조직을 바꾸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변화될 때 개혁이 실현된다. 그리고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먼저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세교회들이 막대한 부를 갖고 권세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교권과 물욕에 빠졌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지금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잃고 세상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이 많다.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에서 헤매는 지도자들이 많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교회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리더의 사명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사명완수를 위해 부단히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교회리더가 사는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다: 기독교연합기관이나 대형교회의 타락상으로 인해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에 빠져있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에 미래가 없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교회와 교단 그리고 연합기관이 탐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교회리더가 사는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관하실 수 있다. 교회는 철저하게 깨지지 않으면 살아 개혁할 수 없다. 여러 교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금권선거 등의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 리더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리더들은 나 자신부터 깨어지고 낫아진 모습으로 섬겨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나를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어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검심으로 영성을 회복해 다시금 희망을 주는 기독교와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하는 리더들이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다는 역사를 믿고 다시 한 번 새로운 희망을 갖는 2017년을 맞이하자.

sondongwon@gmail.com

2017, 개혁을 위한 교회 리더의 책임

손동원 박사

(리더십학자, Midwest University 교수)



필요한 리더, 본받을 리더, 희생하는 리더의 개혁 외침 듣고 싶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는 회개와 각성,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

역전의 드라마 연출하시는 하나님 믿고 희망의 2017년 맞이하자!

개혁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외칠 때 모든 이들이 이에 공감하고 마침내 개혁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구조를 외치거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총만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시작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뀌었고 사랑이 넘쳐서 죄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

개혁의 3가지 요소

▶버릴 것을 버려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인물들이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개인과 조직의 새로운 역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어라: 교회가 개혁하려면 교회 리더의 회복이 선결과제이다. 지도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나에게 타락한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특별히 교회 리더는 진실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의 5가지 자세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리더들이 비전과 야망을 혼동한 채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교회 리더들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실적을 올리는 성공지향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성경학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필요하다: 교회 리더는 인문학적 바탕에 상상력을 더한 풍부한 식견을 가져야 한다. 인간과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들 것이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퇴비목회에 힘써라: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단기행사들은 땅을 죽이고 단기간에 수확만 올리려는 독한 화학비료와 같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분명한 목표 방향을 갖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살리는 퇴비목회에 힘써야 한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의 책임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개혁은 요원하다: 고정관념을 갖고는 개혁 리더가 될 수 없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은 계속된다

60년대는 심히 궁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농촌마을, 가난한 성도 50여 명이 모이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이 많고 애뜻했는지 모릅니다. 구역 예배 후 잔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서로 헤어지지 싫어 계속 신앙 얘기로 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조약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지금은 사람이 식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풍성해지고,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정작 성도간의 애뜻함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사랑이 더욱 증진되고 더욱 관계가 정겨워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현대교회는 전에 없던 불신과 반목이 빈번해졌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교회는 왕성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흥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본주의에 발생에 대해 심층 있게 연구한 독일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그의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개혁자들의 사상이 현대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길은 종교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 너도나도 성직자의 길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 개혁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칼뱅은 잠22: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창출을 선으로 보았습니다. 고로 돈은 악하다는 중세의 관념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을 권장했고, 대신 방탕과 게으름 등을 악한 것으로 경계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모든 기능인, 상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됨으로 놀라운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베버는 갈파했습니다. 그 결과 직업의 귀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나는 이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라고 칼뱅은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자본은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란서의 위그노들은 칼뱅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 기술 노동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이들로 인한 사상의 전염은 구라파를 자

본주의의 총아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본의 축적과 신앙은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막스 베버는 수도원운동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서방 수도원운동의 효시가 된 베네딕트(Benedict 480-547)는 6세기 초에 로마의 근처 수비아코(Subiaco)의 동굴에 들어가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12개의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성직자들의 시기로 529년에 몬테카지노(Montecassino)로 옮

디트의 수도원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11세기 개혁의 가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클리니 수도원 개혁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분연히 일어난 시토 수도회 원장 베르나르도(Bernardo Clairvaux 1091-115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맹렬한 부흥을 이루었으나 그의 사후 2백년이 지나자 원 위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자체 노동과 경작의 원칙이 수도원의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은 대 지주가 되었고, 수도사들은 더 이상 노동하고 경작하며 금욕적

참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가난할 때는 타는 목마름으로 돈을 욕망하여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 물질이 풍성하게 되자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헤어 나오고 싶지만 돈의 달콤함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한국교회의 현재 실상이 아닌가 합니다.

돈 맛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형식적 신앙입니다. 겨우 주일 예배로 때우고 기도는 요식행위로 대체해버립니다. 간절했던 기도는 수십 년 전이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보다는 회의와 토론하는 시간이 눈에

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현대인을 무한 경쟁으로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태되는 자는 죽는 다, 반드시 너는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 자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신앙인들도 그 음성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크고, 많고, 거대한 것에 절대적 가치관을 둔다. 주님은 한 사람, 작은 것, 연약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크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쳤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온갖 난도질을 당한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영적 회복을 위해 고통해야 합니다. 이런 부문에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의 쇠락은 늦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느브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고 나옵니다. 그 꿈은 그를 번민케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교만한 느브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권고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후시 장구하리이다"(단4:27).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실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타콤베 안에서 물질을 위력을 떨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름도 없는 묘지이나 부자는 넓고 화려한 가족묘를 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과연 물질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는 철저히 청지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철학 말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성프랜시스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또는 알도는 물질을 포기하였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알몸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고민에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면 진정한 개혁의 불씨는 불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목회에 큰 은사를 받은 분들이 풍요가 주는 달콤함을 분연히 거절할 때 한국교회의 복음의 여명은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chiesadiroma@daum.net

물질과 신앙의 개혁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성도는 철저히 청지기 정신 회복할 수 있어야...

목회에 큰 은사 받은 분들이 풍요가 주는 달콤함을 분연히 거절할 때 한국교회의 복음의 여명은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겨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베네딕트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복종, 침묵, 정주(한 수도원에 그곳을 떠나지 않음)를 지키는 것, 겸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표어가 "기도하고 노동하고 독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일과가 노동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수도원에서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니 노동량도 많아지고,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므로 재물은 날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재물이 많아지니 수도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게으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도원을 창설한 베네딕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규범이 지켜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정신은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클리니 수도원은 베네

인 삶 내지는 청빈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즉 막대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도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저들은 그 많은 물질을 소모해야 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결국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내에 있는 교회당의 벽과 천장을 황금으로 채색하였습니다. 교회와 마치 왕의 화려한 궁전 같이 치장했습니다. 카시노의 베네딕트 수도원 내의 교회당을 방문하였다가 그 화려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벽과 천정, 그리고 모든 기물들은 온통 금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아니 수도원을 창시한 수도사가 본다면 필경 크게 실망할 텐데 말입니다. 물질이 풍성하다보니 판단도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수도원을 만든 이의 뜻도 동일할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딱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병들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요한 웨슬레는 처음 받은 월급을 평생 유지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떼어 구제나 선교비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런 길을 가기에는 현대인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편리함을 포기하리란 어떤면 목숨을 포기하는 것처럼 고통스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곳곳에 기원전부터 세워진 다이애나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신은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입니다. 구약의 바알이나 블레셋의 아스타롯도 동일한 신입니다. 그 신은 다산의 상징으로 가슴에 유방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의 포로에서 헤어 나와야 합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종교개혁기념: 오전 10시 (영어) 오전 11시 (한국어) 영, 유년, 유년: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c.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앵커리지베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시애틀: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15)542-0288, Fax: (7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mci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키워드로 보는 2016 신학계 결산] 종교개혁·통일·동성에 문제 등 핫이슈 논의 뜨거웠다

2016년 국내 신학계는 여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둔다양한 논문 발표와 학술대회가 연중 내내 이어졌다. 그런가하면 기독교 핵심교리인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적 대처에 대한 교계의 관심도 부쩍 늘었고, 이중직 묵화와 기독교변증, 동성에 문제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주요 키워드로 올 한해 신학계를 조명해봤다.

①종교개혁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인간다움): 기독교는 '헬(hell)조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지난 10월 말 한국기독교학회가 마련한 정기학술대회 주제는 과격적이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가 500년 전에 이뤄졌던 종교개혁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를 비롯해 올해 신학연구단체·모임들은 종교개혁 주제 하에 이 시대 기독교의 존재 의미와 교회·성도들의 개혁 과제 등을 논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의미하는 'Refo500(레포500)' 명칭 사용도 신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해졌다.

②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의 신분을 얻는다는 뜻의 '이신칭의'도 올 한해 뜨거운 용어였다. '칭의(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종교 개혁가들 주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초 미래교회포럼이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를 주제로 연 포럼이 대표적이다. 포럼에서는 칭의와 함께 성화(聖化)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이 같은 논의는 칭의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점만 강조하고 성화를 소홀히 해 죄와 방종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 속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신칭의 연구는 종교개혁 500주년인 내년도 제2라운드도 펼쳐질 전망이다.

③통일

현 정권 들어 꼭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 신학자'들의 갈등이 큰 한해였다. 지난해 교계 안팎으로는 '광복 70주년·남북 분단 70년'을 기념하며 성경 속 희년(禧年)의 의미를 되새겼다. 성경적으로 70년은 민족 해방과 자유,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 등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북대치 속에서 신학자들은 '평화통일' '통일에 대한 교회의 책임' 등을 강조했다. 한국조직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각각 이 같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부 신학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국교회 연합, 예장통합 결단에 달렸다

단일 연합기관 복원 선언 불구 한교연 "절차 잘못됐다" 주장

현직 총회장들이 '한국교회 단일 연합기구' 복원을 선언하고 '새 들' 씨기에 돌입했지만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연 설립·운영에 크게 기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을 거부하는 한교연

지난 22일 이성희(예장통합·사진) 김신규(예장합동) 이중승(예장대신) 여성삼(기독교대한성경교회)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유관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등은 만장일치로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교연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한국교회 전체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교연 관계자는 26일 "우리도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뭔가 잘못됐다. 중대쟁이(교단장회의)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교연을 중재할 생각은 않고 본인이 나서서 결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만히 있는 단체인(한교연)을 왜 자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교단장회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단장회의는 '중대쟁이'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끄는 대표자들의 모임"이라면서 "교회 분열의 책임이 있는 한교연 전 대표회장들은

대적적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 달라"고 부탁했다. 교계 다른 관계자도 "한국교회가 국내 1대 종교가 됐는데 언제까지 분열 상태로 머물 것이냐"면서 "한교연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예장통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교연을 사실상 움직이는 예장통합

예장통합은 한교연 운영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단이다. 한교연 교단 분담금 3억6500만원 중 23.9%(8731만원)를 납부해 재정 기여도가 가장 높다. 총대 355명 중 44명(12.3%), 법인이사 31명 중 8명(25.8%)을 예장통합에서 파송한다. 군소교단이 2명의 총대를 파송하는 것을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예장통합은 한교연 설립 과정에서도 절대적 기여를 했다. 존재할 전 한기총 대표회장의 전횡에 맞서 2011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④인공지능·이중직·기독교 변증

구글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로 떠오른 인공지능(AI)도 신학계의 큰 관심거리였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트랜스휴머니즘(인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성질·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문화적 운동)에 대한 신학적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한신대 종교과학센터장 전철 교수는 "인공지능이나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 신학계의 대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활발한 연구와 논의와 방향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묵회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갖는데 대해 '이중직은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내 양대 신학연구단체인 한국복음주의신학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각각 '이중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예수와 역사적 실존을 변증하는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도 눈길을 끌었다.

대적위원회'를 결성하고 2012년 한교연을 출범시킨 것도 사실상 예장통합이다.

박명수 서울신대(교회사) 교수는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이었던 한국교회 2012년 3개로 분열됐는데 그 중심에 사실상 예장통합이 있었다"면서 "교단의 역사성과 교세, 진보·보수교계를 아우르는 역할을 보더라도 예장통합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대표 교단답게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관재 기침 총회장도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 '진노의 하나님'만 가르쳤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교단, 교회가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바라고 있다. 한교연이 제발 기독교를 내려놔야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기관이 교회·교단 뜻과는 상관없는 정치 인사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예장통합이 한교연을 이끌고 대화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직 성범죄, 종교인이 가장 많다

기윤실 등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토론회

성범죄로 걸거된 전문직 종사자 중 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성폭력으로 걸거된 인원은 5261명이고 이중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620명으로 뒤를 이었고 예술인(406명) 교수(182명) 언론인(82명) 변호사(3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인순 권미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윤실, 기독교법률가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종교 기관 내 성범죄는 은폐되거나 비밀리에 다루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은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종교인'의 성범죄가 많다는 건 그 원인 파악과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부회장인 한국영 목사는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교회 내 성폭력은 절대적인 위계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일회성보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서를 오용해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겨야 한다.' '에덴동산에선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솔로몬이 2000명의 공녀를 거느렸듯이 나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등 말씀을

왜곡해 성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한 목사는 "종교적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 성차별"이라며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 온 성경을 평등의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법률가회 김병규 변호사는 종교인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와 종교인과 신자간 특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인은 신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거의 절대적인 지위에 있어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도 간음이나 추행이 벌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금지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시한 넘긴 총신대...관선이사?

2년 넘게 재단이사회 구성 놓고, 총회-학교 극한대립

김영우 총장 해임 문제로 파행을 겪던 총신대가 이를 넘어 초유의 '교육부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 사태'까지 맞이할 위기에 봉착했다. 신인 재단이사회 구성을 놓고 교단과 학교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15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최고 명문사학이 이처럼 백척간두에 서게 된 것은 대학 재단을 구성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신규 목사)와 대학 측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예장합동 총회가 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총신대에 터치는 재단이사를 파견하고 기존 이사들을 교체하려하자, 대학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2년이 넘게 이어져 재단이사회가 공전만 거듭해왔다. 급기야 교육부는 세 차례나 계고장을 학교와 재단에 발송하고 해결을 촉구해왔다.

교육부는 최근 보낸 마지막 계고장을 통해 "12월 27일까지 이사회를 정상화해 결원 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조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청문→심의→신임 관선이사 선임 등의 절차 등을 밟겠다고도 통보했다.

지난 22일 소집됐던 재단이사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정족수 미달로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총신재단이사회 직무대행인 안명환 목사는 당시 이사회장을 떠나면

서 "나는 다 내려놨는데 총회 측이 원만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다른 이사들도 회의장에 남아 "총회와의 합의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측이 총회와는 아예 담을 쌓은 채 현 재단이사회의 기득권만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예장합동총회 임원회가 선임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은 단 한 번도 총신대 측과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운영이사회가 소집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총회는 총신대측 운영이사회 위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안 목사는 총회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

총신대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장합동 교단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선이사 파견은

곧바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시 악영향을 미치고 수준 높은 예비 목회자 수급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아직 정상화의 길은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마감시한이 지나 행정적으로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법률 전문가가 담당자로 선임될 것"이라며 "1월 말까지 재단이사회가 신임 이사를 선임해 보고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총회 김신규 총회장은 "정상화에 대한 교단적 관심과 열망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단이사회 소집권자이자 총신대 측 입장을 대변해온 안 목사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9명 헌재재판관, 정의 세우게 하소서"

국가기도연합 24일 '미스바 구국 연합기도회' 개최

국가기도연합은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9차 미스바 구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빠르게 규명되도록 기도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조갑진 서울신대 부총장은 요한복음 15~16장을 본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자고 말했다.

조 부총장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우리는 그 이름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기도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 같은 기도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 조국 구원, 평화통일의 영을 부여주셨으며,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내 조국,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부총장은 "오늘 광화문과 시청 앞, 서울역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하자"면서 "특히 국정혼란으로 공허한 사람들의 심령속에 주께서 왕으로 오셔서 구

원과 평화, 하늘의 기쁨이 전해지도록 중보하자"고 도전했다.

이영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제시하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을 수습할 국가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끊고 회개의 무릎으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면서 "특히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성령세례를 체험하도록 중보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 과정을 통해 참과 거짓이 빠르게 규명되고 이 나라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하자"면서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요셉과 다윗,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혼란에 빠진 국정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안동 춘천 등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헌법재판관 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9명의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자세로 지혜, 분별력, 통찰력을 갖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조국여여, 안심하라 성도들이 기도한다"를 외쳤다. 국가기도연합은 31일에도 기도회를 개최했다.

예장합동 '정오기도운동' 선포식

초기 선교사 낮 12시 기도 전통 복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신규 목사)이 2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한 정오기도운동 선포식'을 갖고 기도를 중심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갈 것을 천명했다.

선포식에서 총회 교육부장 김기성 목사는 "제1의 종교개혁이 하나님 말씀중심의 개혁이었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은 기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오기도운동을 통해 매일 낮 12시 마다 학교, 직장, 가정 등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주관사인 기독교신문 사장 남상훈 장로는 "국정난으로 인한 혼란, 교회의 추락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청교도 역사에도 기록된 정오기도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 선교를 시작하며 한국교회에도 접목됐다. 특히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선교사들은 매일 정오에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도 했다.

예장합동은 총회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다음세대를 위한 학교기도운동 간담회' '3355+ 학교기도운동 발대식' '기도운동 확대를 위한 총회산하기관 및 신학교 업무협약' 등을 진행해왔다. 선포식에 참석한 한천철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은 "신대원생 1600여명과 함께 적극 동참해 캠퍼스에서부터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겠다"고 했다.

혼밥족 늘고 싱글 행복지수 상승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10대 뉴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는 22일 '2016년 가정사역 10대뉴스'를 발표했다(표 참고). 올해엔 '혼밥족(나홀로 밥을 먹는 인구)'이 증가하고 싱글 남녀의 행복지수가 기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행복지수(10점 만점)는 7.11로 기혼 남성의(6.98)보다 0.13점 높았다. 미혼 여성 행복지수도 7.08로 기혼 여성(6.96)보다 0.12점 높았다. 반면 고소득 워킹맘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남녀 직장인 행복지수가 결혼한 사람보다 높은 것은 2005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논문은 2005-2015년 서울 통근자 26만5731명의 자료를 모은 서울 서베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기혼 남녀의 행복지수는 결혼생활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에 필요한 갈등해결기술, 대화방법, 부부 간 성문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 강남역 지하철 살인사건 등 혐오 문제, 가계부채 증가, 알파고 등장 등이 주요 뉴스로 꼽혔다.

싱글 남녀의 행복지수가 10년

2017년, 기도로 새해 맞는다

미서부 지역 대부분 교회들 특새로 시작

일시	교회	시간	문의
12/12-1/6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월-금)5:40am	(213)481-2779
12/12-1/21	샌디에고갈보리교회(김영준 목사)	(월-금)5:30am, (토)6:30am	(619)847-4147
12/26-1/7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월-금)5:30am, (토)6am	(562)653-0168
	LA기쁨의교회(이희운 목사)	5:30am	(213)351-9975
12/26-1/18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월-금)5:15am, (토)5:45am	(714)521-0991
1/2-7	나성영락교회	(월-금)5:30am, (토)6am	(714)521-0991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6am	(310)719-2244
	또감사선교회(최경옥 목사)	(월-금)5:30am, (토)6:30am	(323)225-9191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월-금)5:00am, (토)6am	(949)297-3788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월-금)7:30pm, (토)6:20am	(213)386-2233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5am	(323)735-0200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월-금)5:30am, (토)6am	(858)279-9191
	소중교회(김기동 목사)	(월-금)5am, (토)6:30am	(714)990-9191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5:15am	(213)703-461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5:30am	(714)893-1652
	오렌지한인교회(김운진 목사)	(월-금)5:30am, (토)6am	(714)871-8320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월-금)5:20am, (토)6am	(714)446-6207
	포도원교회(정영민 목사)	(월-금)5:30am, (토)6:20am	(310)513-9191
1/2-13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5:20am	(818)832-6628
1/2-14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월-금)5:20am, (토)6am	(909)622-2324
1/3-7	나성금관교회(정상용 목사)	6am	(310)973-5106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목사)	5:30pm	(626)965-9191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화-금)5:20am, (토)6am	(626)744-919
	새누리교회(송경일 목사)	(화-금)5:30am, (토)7am	(650)210-0000
	한길교회(노진준 목사)	(화-금)5:30am, (토)6am	(323)735-0200
1/5-7	OC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	(목-금)5am, (토)6am	(323)735-0200
1/9-14	안디옥장로교회(지운성 목사)	5:30am	(818)249-2871
	샌디에고 한빛교회(정수일 목사)	(월-금)5am, (토)6am	(858)874-2412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과 혼란이 많았던 2016년을 보내며 미 서부 지역 많은 교회들이 미국과 한국, 교계와 성도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로 한해를 마무리 하며 새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12월 12일부터 시작해 오는 1월 6일까지 2017년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는 남가주든든한교회를 비롯해 샌디에고갈보리교회는 1월 21일까지 실시하고 서부지역 대부분의 교회들이 최소 1주에서 40일까지 각 교회들의 새벽기도회가 일제히 실시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기도소리에 또 다시 희망찬 새해를 소망해본다. 다음은 2017 특별새벽기도회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중현선교교회 신년부흥회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신년부흥회를 5일(목)부터 8일(주)까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국하라'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이며 일정은 5일(목) 저녁 7시30분, 6일(금) 새벽 5시20분, 저녁 7시30분, 7일(토) 오전 5시20분, 저녁 7시, 8일(주일) 1-3부 예배

▲문의: (818)549-9191

서부교계 게시판



총신대학교신대원 남가주총동문회 신년하례회
총신대학교신대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윤태근 목사) 신년하례회가 11일(수)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842-6812

주님의영광교회 신년축복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2017 축복의 통로 신년축복성회를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10일간 본 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후 7시30분.
▲문의: (213)749-4500



남가주 선교단체장 모임이 12월27일 오전 10시30분 컴미션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송종록 목사), 선미나스티리(김정환 선교사), 컴미션(이재환 선교사), GMTI(권안 선교사), ISF(최미영 선교사) 등 각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2016금흥사역단체 송년의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금흥단체연합 2016 송년의 밤 성향

남가주밀알선교단, 종려교회, 남가주농야교회, 나눔선교회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나눔선교회(담임 한영호 목사), 종려교회(담임 전성도 전도사), 남가주농야교회(담임 강상희 목사) 등 4개 금흥사역단체가 함께 연합해 준비한 '2016년 송년모임' 행사가 지난 20일 오후 6시, 포감사선교회(담임 최경옥 목사)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016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희망찬 2017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서 4단체의 장애 회원과 봉사자들은 성령 충만한 예배와 맛있는 저녁 식사,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풍성한 선물 등으로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포감사선교교회의 후원으로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나눔선교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인도와 한영호 목사의 기도, 강상희 목사의 설교, 그리고 이영선 마지밀알 총단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가주농야교회 강상희 목사의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행편에 놓인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어 진행된 2부 송년잔치는 전체 사진 촬영과 각 단체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Mission Music Club의 공연, 나눔선교회 청년들의 멋진 기타 연주, 남가주밀알 마가렛리 자매의 특송과 배앰린 자매의 귀여운 율동, 남가주농야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수어찬양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알렉스 류 이사의 인도로 선물 추첨 시간을 가진 후 전성도 전도사의 마무리 기도로 모든 행사가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구세군을 통해 연말 훈훈함이 가득함을 선사했다. 사진위쪽은 연말 구세군 나성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잔잔함을 나누는 행사 모습, 사진아래는 지난 12월 24일 한남마켓 앞에서 열린 마지막 구세군자선냄비 모금행사 모습



2016 G2F Annual Gala and Award Ceremony에서 GGTB가 공연하고 있다

G2F 2016 Annual Gala and Award

'Together We Change for Better Compassion, Action, Empowerment' 주제

G2F(대표 최운호, Give 2 Friends Foundation)가 주최한 G2F 2016 Annual Gala and Award가 'Together We Change for Better Compassion, Action, Empowerment' 주제로 23일 오후 5시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미시서 자매(크레센타벨리하이 스쿨 12학년)와 메리 바실리우스 자매(빌리크리시천스쿨 10학년)의 사보로 열린 이날 행사는 GGMF(지회 장민희 Global Give 2 Friends Music Bank)팀, 소프라노 조현주 씨의 공연이 있었다.

이어 스티브모리슨 장르(MPAK

회장)가 연설했으며 지난 1년간 G2F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학생들에게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운호 대표는 "한인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며 좋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한다. 하지만 좋은 학교 진학이 좋은 인재가 되게 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며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3년 전 G2F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구세군 자선냄비 마감, 총4만8천불 모금

구세군나성교회, 저소득층 지역주민에 온정의 손길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 24일 한남마켓 앞에서 구세군 악대의 캐롤에 맞춰 진행된 모금을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마감됐다.

2016년 구세군 자선냄비는 총4만8천 달러를 모았다. 이 돈은 2017년 한 해 동안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데 유용하게 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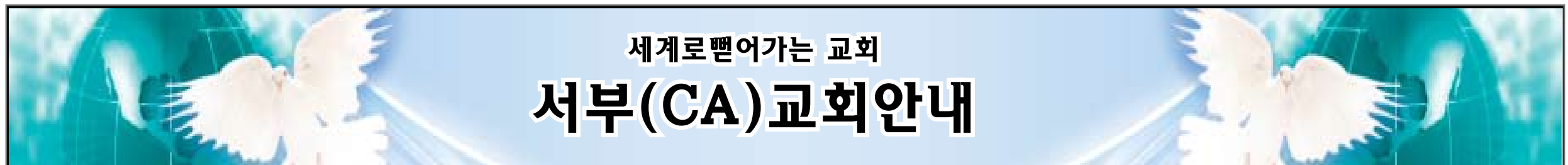
한편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각각 1000여개의 장난감과 음식상자와 점심을 나눠줬다.

교회 측은 "새벽 6시부터 서기 시작한 줄이 끊이지 않았고 장난감과 음식이 다 떨어진 후에야 내년을 기약하며 마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Angel Tree와 Adopt Family 행사도 진행해 싱글맘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물품을 전달했으며 한 싱글맘은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구세군나성교회는 기부의 손길도 향상 기대하고 있다.

▲문의: (213)480-0714 (기사제공: 구세군나성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손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음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EM, 태평: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내년 청년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c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어권(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lb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248 www.kjc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6:30(토) 주일학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g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통속을 위해 일하는 선교부"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목요일 4:00 Tel: (213)245-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86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11: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음악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gpc.org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대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론 www.gracem.com Tel: (714)446-8280, Fax: (714)446-8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1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음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1:45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8239 Fax: (714)646-8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370-3500, Fax: (310)370-2009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3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주여, 일어나소서!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마가복음 4장 35-4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침몰할 지경에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진보 좌익단체와 보수 우익단체는 광화문과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며 기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계가 이미 방향각을 잃었고, 언론은 세말이 하는 좌익단체와 우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업가들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몸에 배어 버렸고, 종교인들조차 영적 더듬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는 미스바 회개운동 같은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팔로새서 3장 5절의 5가지 죄악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며칠 전 Thomas S. Vandal 미8군사령관은 30일에서 60일 안에 한반도에 전쟁이 올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정말 조국은 지금 위기상황 속에 놓여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이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 교회의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큰 광풍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배는 결코 뒤집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나라요, 살아 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요,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으로,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 미국은 세계선교 1위 국가로 세계선교 2위국인 한국과 함께 파트너십 국가로 쓰여질 나라입니다. 한국은 선교의 보병부대요, 미국은 선교의 포병부대로 함께 마지막 선교의 대부흥을 일으킬 나라이기에 마귀는 이 두 나라를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환란은 기도를 통해 부흥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들은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이 광풍 속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왜 몰랐느냐?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광풍을 즉시 잔잔케 하실 텐데, 어찌하여 주님께 먼저 부르짖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은 조국이 비상시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무시는 주님을 부르짖어 깨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운전대를 맡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차안에 모두가 술에 만취해 있어도 운전대를 잡은 자가 깨어있으면 그 차는 통과됩니다. 주님은 이시대의 운전대를 잡은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

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의 거민 30만명이 심판받을 죄를 저질러도 그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한명만 찾으면 그 성의 죄를 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시는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에서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유라골로 광풍 속에 모두 죽게 된 276명은 바울의 기도와 선교사명 때문에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한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조국을 구하기 위해 눈물로 주님을 깨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2016 크리스마스 연주회

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 2016 크리스마스연주회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들과 음악재능기부 봉사자들로 구성된 This-Ability Orchestra(이하 TAO) 장단 첫 크리스마스 연주회가 실버타운 방문 및 위로행사로 Hollenbeck Palms Retirement Home에서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열렸다. 지휘자로 처음 무대에 오른 Rainer Crosett(부단장)은 단원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면서 공연을 마친 후 실버타운 거주 관객들의 질문에 다정하게 답변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음악치료사 김법중 선생이 오르프 클라스를 통해 그동안 지도했던 7곡의 캐롤 메들리를 단원들과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톤차임즈와 타악기로 구성해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단원의 부모이며,

TAO 준안 후원회장의 오랜 지인인 마가렛 사이토 여사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장단 이래 오케스트라 총무로 수고하는 고선희 씨(단원 에릭과 봉사자 윌리엄의 어머니)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때론 눈물을 때론 웃음을 보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음악을 듣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타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는 연주회에서 또 하나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며 감격했다. 대부분의 레지던트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TAO단원들과 어머니들은 시간예술인 음악을 통해 닫힌 세상에서 살아가던 발달장애 자녀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렸다. (기사제공: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제4회 Testify 작은음악회가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사랑의빛선교교회 제4회 Testify 작은음악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제 4회 Testify 작은 음악회가 21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송희진 집사의 진행으로 열린 음악회는 본교 소년소녀들이 기타, 드럼, 플룻, 드럼,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를 선보였다. 이번 음악회를 담당한 송희진 집사는 “Testify 작은음악회가 4회째

를 맞이했다”며 “비록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음악회를 진행하게 됐지만 찬양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됐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박갑수 목사와 조영석 목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LA여성선교합창단 송년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LA여성선교합창단 본지에 후원금 전달 송년모임...4월13일 정기연주회

LA여성선교합창단(이사장 김민석 장로, 단장 최정직 사모) 제 15회 송년모임이 21일 오전 11시30분 만리장성에서 열렸다. 송년모임에 앞서 최정직 단장의 사회로 드린 감사예배는 정병노 목사(새일교회) 기도, 안정희(부서기) 성경봉독, 최대순 목사(일산호수교회 원로)의 ‘인생을 위하여 살자’(눅16:1-3)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찬양은 김민석 장로부

부의 이종창과 여성 중창이 있었으며 최사문 총무가 합창단 연혁을 소개한 후 최대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LA여성선교합창단(지휘 최왕성, 반주 박명숙)은 이날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준 목사)에 문서 선교헌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한편 동 합창단은 오는 4월 13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제 6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찬양사역자 박갑수 조영석 목사 크리스마스콘서트

찬양사역자 박갑수 목사 조영석 목사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3일 오후 7시 이음카페(대표 김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강석변 전도사의 사회로 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박갑수 목사와 조영석 목사의 듀엣무대로 시작됐

으며 장예진 자매, 기타리스트 박종하 형제,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 이자 건반연주자 김은희 자매가 찬조 출연해 훈훈한 무대를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2017년 3.1절에 서울의 미스바 ‘치유하는 교회’ 로 모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동곡 기도대회

남북한의 복음통일과 대한민국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기신 사명은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지 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일시: 2017년 3월 1일 (수) 오전 10시 - 오후 4시30분

장소: 서울 치유하는 교회 (담임 김의식목사) (07773) 서울 강서구 강서로15길 37 (화곡1동 346-46) TEL. 02) 2603-6221, 2601-0675

*참가문의 및 안내: TEL. 949.297.3788 (문성범 실장, 이상문 실장) **해외참가자 신청마감: 1월 말**

*항공료 일부지원은 현역 목회자에 한하며 심의를 요함

-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영길 목사, 김인식 목사, 이재호 목사, 손인식 목사
- **연락처:**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이메일: utdusa21@gmail.com / 홈페이지: www.kccnk.org / 카카오톡 ID: utdkcc



shalom의 교육학(12)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시립 대학교 교수)

적합한 교육내용론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교육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

최근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성소수자들(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졌다. 이에 따르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권익운동에 미친 인물들을 역사, 사회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하비 밀크를 사회적 위인으로 배우게 된다. 또한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2-12학년)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는가?

사우스웨스트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인 William Yount 박사는 그의 책 "Created to learn"에서 제자 모델(Disciplers' model)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기초는 성경과 개인 학습자의 요구(needs)라는 두 가지로 보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의 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돕고, 또 사람들 상호간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자라남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공동체적 성장을 목표로 성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운동하심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필자가 이를 소개한 이유는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교육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수렴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교육내용을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

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필자가 미국에 살게 된 이래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곧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적 정체성을 길러주는 학습교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교회는 아이들의 교재를 한국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국 아이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교재(예를 들면 오픈지커리큘럼)를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인아이들은 그럴 나름의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필자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아이들이 긍정적인 한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자기 자존감을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미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여 이 사회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갈등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계를 말씀으로 아우르는 진정한 영적 지도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자 언급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내용은 곧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된다: (1)탈적합화(decontextualization) 단계 (2)적합화 (contextualization) 단계 (3)재적합화(recontextualization) 단계.

적합화 교육내용 단계

첫째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문화

학습내용의 차별화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경험, 성향에 따라 학습내용을 다양화, 차별화함을 말한다. 학습자의 흥미, 학습 성향, 예를 들면 시각적 학습자에게는 비디오, 그래픽 자료를, 청각적 학습자에게는 오디오 자료를, 그리고 활동지향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활동, 게임, 팀워크,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아이들이 각자의 필요점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 한다.

과정의 차별화란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자료 및 정보에 접근하는가, 혹은 학습내용을 마스터하기 하기 위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학습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 여건을 선정, 이를 계속 발전시키기도 한다. 학습자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학습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팀활동을 통해 서로의 학습을 독려할 수도 있다.

평가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학습결과 혹은 점수매김의 차별화를 말한다.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겠지만 학습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과 영재교육 아이들의 평가항목과 채점기준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평가는 단지 간단한 내용을 암기하는 평가보다는 아이들의 고차원적 사고방식을 촉진하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평가가 더욱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교육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목적이 잘 달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이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교육은 배운

교육내용은 불변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하되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재조명 교육의 3단계: 탈적합화-적합화-재적합화... 예수님은 적합화 교육자의 모델

기 위해서이다. 교육은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행위이다. 그 진리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진리는 상황과 조건에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그런 진리를 교육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진리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다면 그런 진리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은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 성경이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달라지고, 문명은 시초와 종말이 있지만 창세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기준이요, 다림줄이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교육내용

하지만 여기에 고민이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러나 문화는 왔다 가고, 시대도 처음과 끝이 있고 역사는 변화한다. 그러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교육내용을 어떻게 수렴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분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섬긴 후에 Fuller Seminary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을 가르쳐온 Charles Kraft 박사였다. 그가 2005년에 쓴 Appropriate Christianity("적합한 기독교"라고 번역)라는 책에서 그는 복음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과 말씀이 동시적으로 적합한 기독교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교육내용도 마찬가지로. 교육내용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하되 이는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재조명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는 학습자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하게 교육내용을 연계시켰다. 공중에서 나는 새, 들꽃, 새 술과 새 부대, 세금, 겨자씨, 양, 염소, 배, 그물, 어린 아이들, 데나리온 등은 모두 당시 학습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들과 연계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학습자들

환경과 배경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잘 알 수 없는 단어나 개념, 새로운 교과내용을 쉬운 말로 잘 설명해 줌으로 학생들이 가급적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를 위한 효과적 방법에 대해 연구를 거듭해왔다.

예를 들면 러시아 교육심리학자인 Lev Vygotsky는 학생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최적 발달의 범위(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불렀는데 교사는 각 학생들의 이러한 이해의 범위를 파악하여 적합한 지지(그의 용어로는 Scaffolding)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스위스 아동심리학자였던 Jean Piaget는 아동 각자는 스스로 다른 이해의 틀(그의 용어로는 Schema)이 있으므로 아동의 상황과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였다.

Teaching과 Learning의 차이를 아는가? 전자는 교사가 어떻게 지식/내용을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는가를 말하며 후자는 학습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가를 말한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teaching=learn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교사는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학습자는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엉뚱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가? 바로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두 번째 적합화 단계가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있는 단어/개념/내용을 사실 그대로 쉽게 설명해주는 단계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가르친 내용을 학습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합화 시키는 단계이다. 주님은 바로 이런 점에서 적합화 교육자의 모델을 보여주신다.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차별화 교육(differentiated instruction)이라는 전략을 사용한다.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별한 학습자 니즈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English language learners),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혹은 영재교육 아이들을 위하여 이들을 위한 차별화 교육을 하여야 할 경우 통상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 교육(내용/과정/평가)을 진행한다.

바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가, 우리 조직이, 학교가, 사회가 나아가고 행복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이야기한 재적합화 단계의 중요성이 있다. 배운 내용은 반드시 학습자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적합화 교육과정론에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요소가 바로 교사이자. 교사는 문화 중재자 및 번역자가 되어야 한다. 각 개인 혹은 한국이라는 문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연계시키고 이를 각자의 삶속에서 변혁을 인도하는 모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셨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 결코 유대인의 상식과 범주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엡2:14) 분이 아니셨던가?

예수님: The Master Teacher

세 단계의 적합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한 율법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보라! 탈적합화 단계로 주님은 율법의 예를 들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이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평범한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셨다. 적합화 단계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내려온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 갈등의 관계를 이야기(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질문하신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깊은 통찰과 이해를 통하여 그 율법사는 이웃의 개념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신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재적합화 단계이다. 점으로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아닐 수 없다.

(계속)

hlee0414@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마27:45-46)찬211장

창세 이래 구속의 모든 상징과 모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세 시간의 어둠(45). 창세전의 흑암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당한 흑암의 고통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왔습니다(엡5:9). 둘째, 성부로부터 버림당하신 주님의 절규(46).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성부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옥과

통이었습니다. 성부의 내어주는 사랑과 성자의 지원하신 대속의 사랑이 연합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46). 셋째,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고통(47-48). 마취제 일종인 신포도주가 주어진 것이 고통의 실재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채우는 성도가 됩시다.

화 이 큰 증거(마27:50-56)찬161장

그리스도 죽음의 효능이 처음으로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51)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닫힌 죄를 단번에 제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된 일의 상징적 선포입니다. 둘째, 땅의 진동(51)은 그의 죽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보사역이 영원히 계속됨을 보인 것입니다. 셋째,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 남(52-53)은 그의 죽음의 효능의 절정을 보인 것입니다. 새 생명은 오직 그의 완전한 죽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의 죽음 없는 부활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증거를 안고 사는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신앙고백(마27:54-56)찬496장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운명 직후의 상황을 간단히 묘사한 마태는 그의 완전한 죽음을 주목했습니다. 첫째, 집행관들이 증거했습니다(54).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집행관은 그되는 일을 보고 몸서리 떨었습니다. 둘째, 집행관들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죽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죽음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불가능한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롬5:8). 셋째,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54-56). 조용히 따르던 여인들의 증거는 그의 구속의 증거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심은 우리 구원의 발판이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목 그리스도 죽음의 증인들(마28:57-61)찬35장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싸고 보여진 그의 완전한 죽음의 복음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첫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보여졌습니다(57).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 행위가 그의 죽음을 증거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만이 무덤에 장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빌라도가 증거합니다(58). 주님을 사형집행하는 일의 수장인 빌라도가 그의 시체를 내어줌이 그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구속의 의미에 무

지한 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증거하는 셈이 됐습니다. 셋째, 그리고 여러 마리아들(61)이 그의 죽는 과정과 완전한 죽음을 거듭 확인해 그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온 세상이 증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죄책과 모두 형벌이 완전히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그의 죽음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 원수들의 증거(마27:62-66)찬471장

그리스도의 절대 고난과 절대 죽음의 증거가 본문에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첫째, 종교지도자들의 확인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62). 안식일 예배일인 금요일에 운명하신 사실이 그들에게 확인됐고 그의 부활 예언의 성취를 걱정해 사흘간 군병이 지키도록 요청할 정도로 분명한 죽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빌라도 자신이 또 다시 증거했습니다(65).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하여 파수꾼을 내

어주는 그의 결정 자체가 그의 죽으심을 증거했습니다. 셋째, 파수꾼이 확증했습니다. 무명의 로마 군병들이 그의 완전한 죽음을 증거하는 최종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죽으심의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토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마28:1-4)찬151장

첫째,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정확한 때에 부활하셨습니다(1-3). 안식후 첫날 새벽 곧 죽으신 후 사흘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을 열면 3일만에 다시 살아시며 요나가 3일야 포물고기속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적 예언대로 3일만에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둘째,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2-3). 지진, 번개 빛,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러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부활현장은 성령 임재하심의 권위가 행사된 곳입니다. 셋째, 파수꾼의 기절이 그의 부활을 증거합니다(4).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확고한 사실 위에 서서 놀라운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2면에서 계속)

한편 "스트롱맨 정치"는 "마초 정치"라고도 부를 수 있다.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은 자국 내외로 개성을 앞세운 강력한 통치, 대외정책에서는 국익과 자존심을 내세운 강경 정책을 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단호하며 반대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징도 있다. 때로는 이런 자신감이 지나쳐 독재적인 성격을 띠거나 밀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구촌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이 줄줄이 나타나 '마초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은 21세기 국제사회를 특징짓는 뚜렷한 흐름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힘을 앞세우거나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Realism)로 불리는 대외 정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조나선 하슬람 교수(Jonathan Haslam)는 현실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국제정치에서는 개인이나 국제기구보다 국가가 중심적인 행위자다. 둘째, 국제정치 체제는 국가를 규율하는 권위를 가진 초국가적인 기구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인 성격을 띤다. 셋째, 국제정치 체제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넷째, 모든 국가는 자신을 존속할 수 있는 힘을 추구한다.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는 세계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관계의 행위주체는 국가 외에는 없으므로 무정부인 세계에서 국가의 지상목표는 생존에 있으므로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사력을 비롯한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제협력이나 국제법을 중시하는 이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을 유지한다. 군사력이나 국익을 중시해 호전적인 성격을 갖는다.

결국 "스트롱맨 정치" 또는 "마초정치"는 새로운 국제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힘과 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기업 CEO든 중국 정부든 간에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결론으로, 성경에서 "스트롱맨" 또는 "마초"와 유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6장에는 점점 타락해서 극악해진 영성을 잃어버린 인류와 홍수, 노아의 방주 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특히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이 네피림이라고 언급되었다. 그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그들은 누구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해석이 무난한 해석이다. "반신반인(半神半人)" 형태에게에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지만 이들 역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인족에 매료된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처럼 세계는 강하게 보이는 마초 같은 트럼프, 푸틴 그리고 시진핑이 이끄는 '철권통치'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힘'과 '힘'이 충돌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 Tel. (718)639-3021 Fax.(718)507-637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el.(718)570-585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상수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